

탐사보도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장애학생에겐 생존권 문제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윤용석(디지털콘텐츠학 2015) 씨는 국제캠퍼스(국제캠) 유일의 휠체어 이용 학생이다. 인도 환경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가파른 경사로, 흠이 패인 인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항상 일정보다 미리 움직이고, 길을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었다. 우리신문은 윤 씨를 만나 다섯 해 동안 다녔던 정문에서부터 전공 수업을 듣는 예술디자인학관까지 이르는 등곳길을 되짚어보며 우리학교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학교 합격하자마자 가장 큰 고민은 예술디자인학관에 오르는 언덕이었어요.” 윤 씨는 우리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동 휠체어만 탔었다. 그러나 학교에 합격하고 그 기쁨을 누릴 새 없이 급하게 전동 휠체어를 맞춰야 했다. 국제캠 정문에서 예술디자인학관까지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윤 씨는 “언덕을 오르는 게 익숙지 못했던 때 이동도우미와 같이 등고했어요”라고 회상했다. 가파른 언덕 탓에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경사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공간에서도 이어졌다. 인도 턱에 시멘트를 덧발라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기에는 경사가 급했다. 윤 씨는 “생명대학관 앞 경사로를 무리하게 지나다 휠체어가 굽히고, 균형을 잃어 몸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도 있어요”라며 급격한 경사로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윤 씨가 이를 학교 측에 건의하자 학교는 경사로를 완만하게 정비했다. 이처럼 휠체어 장애인 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경사로의 각도다. 학내는 물론 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식당가는 이보다 심각한 상태다. 윤 씨는 “학교 외부에 있는 식당은 이동을 돕는 경사로가 없고, 오히려라도 경사가 가파른 것이 대부분이라 이용하기 어려워요”라고 말하며 학교 외부 식당을 찾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인도보다 차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진 인도를 지날 때 휠체어 바퀴를 타고 진동이 그대로 전해져 몸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① 인도 가장자리의 불법 주차차 차량으로 인해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다. ② 경사가 급한 경사로에 시멘트를 덧발라 완만하게 정비한 모습이다. ③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흠을 매워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④ 선승관 경사로를 전동 휠체어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인도 대부분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기준에 미달돼 휠체어를 타고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학교는 주로 아스팔트로 길이 설치돼 있지만, 외국어대학관에서 우정원에 이르는 아스팔트 길은 유난히 흠이 많이 패여 울퉁불퉁하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길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조그마한 흠에 균형을 잃기 쉽다. 윤 씨는 “길을 새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깊게 파인 흠을 매워주는 것만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측에 해당 길을 평평하게 정비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만약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을 위해 도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장애학생 통행로를 우선 보장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학교는 선승관을 지으면서 장애학생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변의 인도를 함께 공사했다. 윤 씨는 “인도가 사라져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찔했죠”라며 당시의 공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던 순간은 또

있었다. 2015년 입학 당시 정문에는 장애학생 전용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씨는 계단으로 돼 있던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했다. 특히 우리학교 특성상 학내에 버스 차고지가 있어 정문부터 버스가 수없이 지나간다. 윤 씨는 “등교할 때는 물론이고, 신입생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할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인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불법차량 역시 통행의 방해물이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사람 한명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기 어렵다보니 자주 돌아가요”라며 윤 씨는 체념한 것처럼 말했다.

건물을 들어가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윤 씨는 예술디자인학관에서 주로 전공 수업을 들지만 통행로는 모두 우회해야만 한다. 예술디자인학관을 이용할 때 경사로가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강의실을 찾아간다. 또 난방을 위해 문을 닫아둬야 하는 겨울마다 윤 씨는 난감해진다.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예술디자인학관의 문을 혼자 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

다. “문이 닫혀있으면 다른 학생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추운 날씨에 15분이나 기다린 적도 있어요” 윤 씨는 겨울마다 의례적으로 겪는 난관을 익숙하다는 듯이 말했다.

엘리베이터 부족도 윤 씨의 불편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다. 국제캠퍼스의 필수 교양 수업 대부분은 멀티미디어관에서 진행된다. 윤 씨도 새내기 시절 필수 교양을 수강하기 위해 멀티미디어관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다보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 휠체어를 탄 윤 씨에게도 양보해주지 않아 이미 다른 층에서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보내야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관에서 연속적으로 강의가 있을 때는 더욱 고역이에요” 윤 씨는 매년 아슬아슬하게 강의실에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단과대학 건물은 일절 이용하지 못한다. 윤 씨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와 스토리텔링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지만 외국어대학관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어 포기했어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무엇보다 윤 씨는 학교를 다닌 지 벌써

다섯 해가 지났지만 한 번도 축제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 축제가 매년 운동장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휠체어로 운동장 경사로를 내려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동장 안에서도 지면이 울퉁불퉁해 이동이 어렵다. 윤 씨는 “대운동장 경사로에는 유독 경사가 급해서 가볼 생각조차 없어요”라고 말했다. 노천극장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지만 이 또한 축제가 진행되면 두 갈래 길 중 평평한 길을 통째로 경사가 급한 길로만 진입 수밖에 없다. 게다가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이 노천극장에 어렵게 도착하더라도 진입경사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객석이 계단 쪽에 설치되면 원활한 관람이 어렵다.

윤 씨는 “서울캠퍼스 축제에 배리어프리존이 설치된 것처럼 앞으로 국제캠에도 장애학생 대상 복지사업이 마련돼 다양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며 “보다 장애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해내고 싶은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등록기간 : 6. 17.(월) ~ 7. 5.(금) 16:00까지
• 추가 등록기간 : 7. 8.(월) ~ 7. 12.(금) 16:00까지
※ 인원수 미달로 폐강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강의기간

정규 외국어강좌(6주) : 7. 8.(화) ~ 8. 16.(금)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19:2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후반 18:00~19:30 (화)					
	레벨	Ted Talk		Easy Book Club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19:30 (월)	오후반 19:30~21:00 (화, 수)	오후반 18:00~19:30 (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 1	
	수강료			120,000원w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 Tel. 02) 961-0081~82 | http://www.iie.ac.kr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가. 접수 기간

■ 1차 : 6. 17.(월) ~ 6. 28. (금)
■ 2차 : 7. 8.(월) ~ 7. 19. (금)

나. 강의 기간

■ 1차 : 7. 1. (월) ~ 7. 25. (목) / 4주간
■ 2차 : 7. 22. (월) ~ 8. 14. (수) / 4주간

다. 프로그램 일정

	1차	2차
LEVEL TEST	6. 26. (수) 17:00	7. 17. (수) 17:00
입교식	7. 1. (월) 10:00	7. 22. (월) 10:00
Game Day	7. 11. (목)	8. 2. (금)
수료식	7. 25. (목) 13:00	8. 14. (수) 13: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5명	
강의대상	LEAP	초 · 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 · 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Half-Day Course (오전or오후) : 330,000원 (교재비 포함) Full-Day Course (오전+오후) : 595,000원 (교재비 포함)	

※ 1, 2차 연속 수강 시 :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장학 혜택 부여

라. 강의시간표

	LEAP	LEAP Advanced
10:00 ~ 11:20	6. 26. (수) 17:00	7. 17. (수) 17:00
11:30 ~ 12:50	7. 1. (월) 10:00	7. 22. (월) 10:00
14:00 ~ 15:20	7. 11. (목)	8. 2. (금)
15:30 ~ 16:50	7. 25. (목) 13:00	8. 14. (수) 13:00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증 수여
■ Full-Day Course 수강 시, 성적, 출석 80% 이상일 경우, 영어 1 / 대학영어 면제 (서울캠퍼스 학생에만 해당)